

IV 평도





여수시
변천사

IV. 평도



1. 사회·지리적 배경과 환경

가. 사회·지리적 배경

1) 주요 항과의 거리

평도항은 여수여객선터미널에서 직선거리로 60.5km 떨어져 있다. 인근의 손죽항까지는 9.3km, 소거문도항 6.9km, 광도항까지는 7.9km 떨어져 있다.



평도항



평도선창



평도마을

2) 인구현황

2023년 7월 1일 기준, 평도의 인구 현황을 살펴보면 주민등록상 35세대 49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이중 남자가 29명, 여자가 20명으로 최근 인구가 늘고 있다.

인구 현황 (명)

구분	세대수	인구수	남	여
평도	35	49	29	20



평도 전경

3) 토지현황

평도의 총면적은 1.1km²이고, 해안선 길이는 5.5km이다. 1999년 기준 토지이용 현황은 전답 0.07km², 임야 0.99km², 기타 0.05km²이다.

		토지 현황 (km ²)		
구분	면적	전답	임야	대지 및 기타
평도	1.1	0.07	0.99	0.05

4) 공공기관

평도에는 특별한 공공기관이 없었다.

5) 교육기관

초도초등학교 평도분교 ¹⁾

1960년 6월 15일 손죽초등학교 평도분교장으로 설립되었다.
1985년 3월 1일 초도초등학교 평도분교장으로 편입되었고 학생 수 감소로 인해 1991년 2월 폐교되었다.

1960. 06. 15. 평도분교장 설립

1985. 03. 01. 초도국민학교 평도분교장으로 편입

1991. 02. 28. 평도분교장 폐교



폐교된 평도분교(2008)



폐교된 평도분교 터

1) 손죽초등학교 연혁은 『손죽향토지』(1999)와 『초도향토지』(2020)가 약간 다르게 기술되어 있는데 손죽향토지의 연혁을 따른다.

6) 기타

평도내연발전소

2004년 준공하여 평도 주민에게 전기를 공급하고 있다. 2021년에 일부 건물을 신축하였다. 현재 전우실업에서 소속으로 정식 명칭은 전우실업(주) 평도사업소이다.



평도내연발전소



평도내연발전소(2008)

7) 사회조직

어촌계

인근의 광도와 함께 평도어촌계를 구성하여 2023년 현재 수협에 등록된 어촌계원 수는 30명 정도이나 실제로는 약 25명 정도이다. 65세 이상 15명, 이하는 10명 정도이며 남녀비율은 약 6:4이다. 어촌계 수익사업은 김(돌김), 미역, 톳과 같은 해조류를 공동으로 채취하여 판매한 수익금을 일부 마을 기금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일부 어촌계원들은 나잡업을 하는 해녀는 없으나 잠수기어업을 통해 전복, 소라, 홍합 등을 채취하며, 어업면허가 있는 계원들은 복합어업 및 통발, 자망, 낚시 등으로 수산물을 얻고 있다.



평도어촌계 사무실(리사무소)

나. 지형과 환경

평도의 토양과 기후, 주변 조류는 인근의 초도와 비슷하다.

1) 지질

평도는 최고봉이 137.4m이다. 평도는 본 섬이라고 할 수 있는 대평도와 본 섬의 북쪽에 있는 소평도 2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다. 섬 중앙부에 고도가 낮고 평탄한 지형이 나타난다. 해안 주위로 암석해안이 발달하고, 섬 주변에 비석바위·앞여·검등여·큰여·작은여 등이 분포한다. 소평도와 평도의 지질은 중생대 백악기 때 형성된 경상계 유천층군에 관입된 흑운모화강암(Kbgr)이 발달하였고, 갈퀴섬 남단은 안산암 및 안산암질 응회암(Kiv)으로 구성되어 있다.

(1) 해식애와 해식동

평도 특히 갈퀴섬에는 해식애와 해식동이 잘 나타난다. 해식동은 해식애의 기저부에 발달한 것으로 폭에 비하여 높이가 높은 것이 많고 대부분 해안선 가까이에서 파도, 조류, 연안류 등의 작용을 받아 해안에 형성된 동굴이다. 더구나 해안에 주상절리가 발달하면 이곳에 생긴 틈바구니를 파고, 파도가 밀어닥쳐 썰기 역할을 하여 그 틈을 넓히고 연층부를 관통하기도 한다.²⁾



갈퀴섬의 해식애와 해식동

2) 자연지리학사전



좌부터 갈퀴섬-평도-소평여-소평도

(2) 소평여 섬 내는 시스택(sea stack)의 일종인 여가 발달하였다. 여는 간출암(rocky dry)과 수상암(rock above water)이 있는데, 이곳의 여는 대부분 수상암이다.



소평여

(3) 암맥 평도 일원에서는 암맥이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지구조운동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화성암이 주로 발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암맥은 기존 암석의 틈을 따라 판상으로 관입한 화성암의 암체로 주로 반심성암으로 구성된다. 암맥을 구성하는 암석을 맥암(dike rock, vein)이라 하는데 맥암의 침식 저항 상태에 따라 기존 암석보다 두드러져 보이기도 하며 골을 형성하기도 한다.³⁾



갈퀴섬의 암맥

3) 자연지리학사전

2) 주변 환경

최근에는 낚시꾼들이 많이 찾으며, 여름철에는 벵에돔과 돌돔, 가을에서 겨울철에는 감성돔이 많이 잡힌다. 전력은 공급되나 상수도는 공급되지 않아 주민 대다수가 간이 상수돗물을 식수로 이용하고 있다.

3) 주변 도서

섬의 북동쪽에 손죽도와 소거문도가 자리 잡고 있으며, 동쪽으로 광도가 있다. 부속 무인도서로 북쪽에 소평도가 있고 남동쪽에는 검등여, 남쪽으로 갈퀴섬이 있다.



소평도와 소평여



갈퀴섬

다. 식생과 생태

삼산면 지역은 늘푸른넓은잎수림이 우점종한다. 온대성 넓은잎낙엽수종으로 누리장나무, 꾸지나무, 멸구슬나무, 보리수나무, 붉나무, 예덕나무, 천선과, 팽나무 등이 나타나고 있다. 동백나무, 광나무, 후박나무 같이 잎이 두껍고 광택이 나는 조엽수림이 군락을 이루고 있는 곳도 있다.

평도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유인도에서 사람의 간섭이 많은 지역에서 나타나는 식생이 아닌 평도만의 특별한 식생이 존재한다. 유인도와 무인도를 구분하지 않고 사람의 간섭이 적은 산림지역에는 산벚나무, 머귀나무, 동백나무군락, 서어나무군락, 후박나무군락이 나타나고 있다. 무인도의 경우는 넓은잎낙엽수림의 과정을 생략하고 늘푸른넓은잎수림 군락이 바로 나타난다.

유인도의 휴경지와 환경사지에는 억새군락과 등칠히군락, 이대군락이 분포하고 있다. 무인도에서는 능선부에는 소사나무군락, 졸참나무군락이 출현하고 있으나 인간의 간섭이 상대적으로 심한 지역에는 예덕나무군락, 뽕나무군락 및 이대군락 등이 출현한다.

주로 산지낙엽넓은잎수림으로 천선과군락, 머귀나무군락, 사스레피군락, 산벚나무군락, 서어나무군락, 예덕나무군락, 철쭉군락이 있다. 늘푸른넓은잎수림으로 구실잣밤나무군락, 굴거리나무군락, 다정큼나무군락, 돈나무군락, 동백나무군락, 우묵사스레피군락, 참식나무군락, 후박나무군락 등이 있다.

평도의 폐교에도 까마귀쪽나무와 동백나무, 예덕나무 등으로 채워져 있는데, 운동장에 들어설 수도 없을 만큼 나무들이 사람의 키보다도 더 컸다.

1) 평도의 생태자원

평도는 본래 석란이 많다고 하여 석란도(石蘭島)라 불렸으나, 섬의 형태가 평평하여 평도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석란을 석곡이라고도 하는데, 인적이 드문 숲속 바위나 오래된 나무 위에서 잘 자란다. 평도에 석란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골이 깊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석곡은 절벽이나 높은 나무, 바위에서 자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암벽을 타거나 드론을 띄워야 만날 수 있다. 낮은 지대의 바위에서 사는 석곡은 거의 다 사라졌다. 물론 일부 고사한 것도 있지만 등산객들이나 섬주민들이 화단을 가꾸기 위해 마구잡이로 채취하여 멸종의 위기를 맞은 것이다.

특히 석란꽃을 제때 보기는 쉽지 않다. 가는 길도 험하지만 정작 석란이 있는 곳에서도 암벽 전문가를 모시고 가야만 가까이서 영접할 수 있는 귀하고도 귀한 멸종위기식물이다. 원시림 처럼 우거진 숲을 헤치고 가다 보면 워낙 습한 계곡에 모기뿐만 아니라 뱀도 많이 나타난다. 두 발로는 갈 수 없는 곳이라 두손과 두발로 기어서 올라가야 겨우 석란을 볼 수 있다. 석란은 큰 바위가 나타나고 그 위를 올려다보면 틈이 벌어진 곳에 방석처럼 모여 자란다. 서식처가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물리고 물려서 깊은 계곡이나 숲속의 구석진 곳에 조심스럽게 보금자리를 잡고 살아가고 있다.

안개가 많이 끼는 봄날의 바다에서 길을 잃고 헤맬 때 진한 꽃내음으로 방향을 가늠한다고도 한다. 석란과 풍란은 진한 꽃내음을 풍기는 꽃이다. 석란은 홍선대원군 이하응의 작품으로도 유명하다. 지금은 석란을 찾으러 가는 것을 엄두도 낼 수 없다. 절벽을 오를만한 사람도 없을 뿐더러 산이 깊고 울창해서 그 속을 헤집고 들어가기도 어렵다. 때문에 평도에 어느 정도의 석란 개체가 남아있는지 알 수 없다.

2) 평도의 식물 및 식생

옛날에는 평도에 석란이 지천으로 자생하고 있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풍란과 석란이 많았지만, 탐방객들이 무분별하게 채취해 가고, 평도 주민들도 지인에게 선물하기 위해 무작위로 채취하다보니 지금은 자취를 감추고 없다.



석란



자금우



천남성

마을에서 물커지로 난 길을 따라가다 보니 멧석딸기들이 길가에 즐비하게 늘어서서 빨간 얼굴을 들이밀며 사람을 유혹하지만, 그것을 선뜻 따러가는 손길이 없다. 먹거리가 부족했던 시절 아이들이 소 먹이러 다닐 때 빨간 멧석딸기는 단연 으뜸의 간식거리였다.

멧석딸기는 장미과 딸기속에 속하고 주로 산기슭과 밭둑에 자란다. 옆으로 기면서 자라며, 줄기와 가지에 짧은 가시와 털이 있다. 열매는 보통 7~8월에 붉은색으로 익는데, 핵과들이 모여 둥그런 공 모양을 이루고 있다. 멧덕딸기와는 이름과 생김새가 비슷하지만, 멧덕딸기보다 줄기와 가지에 가시가 조금 나 있으며, 잎이 다소 둥그렇게 생겼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열매는 단맛과 새콤한 맛을 가지고 있다. 열매 뿐만 아니라 어린 순도 식용하는데 보통 나물로 만들어 먹는다. 뿌리와 줄기 등은 약재로 쓴다. 열매는 단맛과 새콤한 맛이 나는데 말려서 먹으면 당도가 높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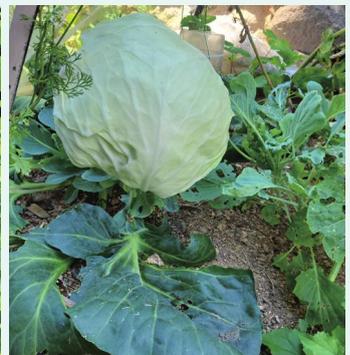
시멘트길을 걷다가 바다가 눈에 보일 즈음에 오른쪽으로 난 작은 산길 입구가 나온다. 산길을 따라 한참 오르면 깊숙한 산속에 정경렬⁴⁾씨의 집이 있다. 평도의 산은 비교적 경사도가 낮지만, 숲이 짙어서 음지 숲은 캄캄하게 보인다. 오르는 길 양쪽에는 거대한 천남성의 자생 균락지가 있고, 자금우도 균락을 이루고 있다. 자금우는 초여름에 흰색으로 꽃이 피며, 초가을에 빨강계 열매가 익는다. 열매가 아름다워서 실내에서 관상용으로 키우기 때문에 주로 화원에서나 식물원에서나 볼 수 있는데 평도에서 쉽게 볼 수 있다.



멧석딸기



노박덩굴



재미난 양배추

4) 정경렬 : 1960년생으로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낚시와서 평도에 반해 눌러앉았다. 숲속 깊숙이 혼자 집을 짓고 사는데 평도 사람들은 이 집을 숲속별장이라고 부른다.

교목들이 울창한 숲에 자금우, 천남성, 털머위가 군락을 이루며 자생한다. 삼산면 지역에서 절벽 위에 털머위가 자생하는 곳은 많지만, 이곳처럼 평지 산에 약간 음지인데도 털머위가 이렇게 많이 자생하는 곳은 드문 현상이다. 털머위는 음지식물이라 지피식물로 많이 심기 때문에 오동도 등지에서 여수의 인공산림의 하부 식물로 많이 심어지기도 한다.

평도의 밭들은 대부분 묵전이다. 가끔 일구어진 밭에는 옥수수과 도라지가 심어져 있다. 요즘은 대부분의 섬에서 옥수수를 제대로 수확하려면 밭 주위를 그물로 완전 철통 방비를 해야 그나마 옥수수를 손에 넣을 수 있다. 멧돼지 등의 산짐승들이 민가까지 내려와서 설쳐대니 농작물 키우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다행히 평도에는 멧돼지가 없어서 그물을 치지않고 옥수수를 심었다.

숲속 별장 정경렬 씨의 텃밭에 심은 양배추가 재미있게 자라고 있었다. 밑둥이 위로 쑥 올라와서 위에 꽃봉오리처럼 양배추가 자랐다. 이렇게 크는 이유는 정경렬 씨가 혼자 살면서 하나를 다 잘라서 먹으면 너무 오래가고 상할 수도 있어서 먹고 싶을 때마다 한 잎씩 따서 먹기 때문이라고 한다.

양배추를 한입 따려면 배추를 돌려가면서 요령껏 따야 하는데 이렇게 세워둔 상태에서 한 잎을 따려면 상당한 노하우가 요구되는 방식이다. 산속에서 혼자 사는 지혜를 발휘한 재미있는 모습이다.

산 위 깎바위 사이사이에는 깎방풍과 해국이 툼툼이 박혀있다. 다른 지역이 칠펍쿨로 몸살을 앓는데 반해 평도는 노박덩쿨이 칠펍쿨을 상당히 제한하고 있다. 그 약효가 알려지면서 육지 등에서는 일부러 찾아야 보이는 엉겅퀴도 군락을 이루고 있다. 산비탈 약간 응달진 곳에 백량금도 군락을 이루며 뽕얀 꽃잎을 디밀고 있다. 산머루도 이제 막 꽃에서 열매로 변한 개체들이 잎 밑에서 가을을 채비하고 있다.

평도는 섬의 중심으로부터 많은 지역이 곰솔군락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해안능선을 따라 낙엽활엽수림인 소사나무군락이 출현하고 있다. 섬의 일부지역에는 농경지와 민가가 있고, 휴경지에는 띠군락, 억새군락, 칠펍군락, 망초군락, 환삼덩굴, 억새군락, 바랭이군락이 출현하였다. 평도 남서쪽 해안은 급경사이며 파도에 침식이 심한 곳이며 남쪽 무인도인 칼퀴섬에는 섬향나무가 자생하여 군락을 형성하고 있다. 곰솔숲 아래에는 우묵사스레피나무, 피나무, 작살나무, 사스레피나무, 머위 등이 있었고 밭 주위에는 구기자나무, 이대, 노린재나무, 모시풀,

닭의장풀, 도꼬마리, 한삼덩굴, 하늘수박 등이 분포하고 있다.⁵⁾

큰재산 쪽에는 동백나무, 메밀жат밤나무, 구실жат밤나무, 천성과나무, 개산초나무, 섬쥐똥나무 등 상록활엽수가 비교적 많이 분포되어 있고 왕대 나무가 심어져 있으며 곰솔아래에는 자금우의 군락이 형성되어 있다. 해안 쪽으로는 자귀나무, 후박나무, 붉나무, 말오줌대나무, 산닥나무, 해안싸리 등이 부분적으로 군락을 형성하고 있다.

3) 육상동물

평도에는 인근의 광도와 소거문도와 비슷한 육상동물이 출현하는데 주로 직박구리, 동박새, 휘파람새, 바다직박구리, 섬개개비, 칼새, 꿩이갈매기 등이다.

4) 해양생물⁶⁾

조간대 암반조사 결과 총 24종이 출현하였으며 해면동물 2종, 자포동물 1종, 태형동물 11종, 연체동물 8종, 절지동물 2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면동물에서는 왜핀셋해면, 주황해변해면, 자포동물에서는 흰깃히드라, 태형동물에서는 수염이끼벌레류, 노바접시이끼벌레, 거미이끼벌레, 마디이끼벌레, 가지이끼벌레류, 연구멍이끼벌레류1, 연구멍이끼벌레류2, 분홍이끼벌레, 배조두체측입이끼벌레, 입이끼벌레, 방사이끼벌레가 출현하였으며, 연체동물에서는 군부, 진주배말, 애기삿갓조개, 좁쌀무늬총알고둥, 두드럭고둥, 흰갯민숭달팽이, 지중해담치, 굴, 절지동물에서는 검은큰따개비, 바위게가 출현하였다.

해조류는 총 56종이 출현하였으며 녹조류 9종, 갈조류 9종, 홍조류 38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채집된 해조류는 참깃털말, 고등옷대마디말, 작은구슬산호말, 애기가시덤불, 참지누아리, 부채살, 불등풀가사리, 참풀가사리, 툫, 패, 참산호말, 개서실, 개우무, 애기서실, 타래서실, 참보라색우무, 민자루갯쇠털, 왜모자반, 진두발, 참까막살, 갈래대마디말, 모란갈파래, 미끌도박, 굽은석목, 곁가지서실, 깃털서식, 참그물바탕말, 가죽그물바탕말, 돌가사리, 구멍갈파래, 방석청각, 청각, 큰깃털말, 큰대마디말, 붉은까막살, 잎꼬시래기, 마디잘록이, 누른끈적이, 석목,

5) About전남의섬(<https://islands.jeonnam.go.kr/>)

6) 2002 전국 무인도서 자연환경조사 전라남도 여수 II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2003)

넓은분홍잎, 미역, 왜톨개모자반, 우뭇가사리, 좁은붉은잎, 주름붉은잎, 참곱슬이, 두갈래분홍치, 왜비단잘록이, 네깃풀, 엇가지풀, 갈고리분홍잎, 모로우붉은실, 넓은보라색우무 등이 서식하였다.

5) 보호수

평도에는 보호수가 없다. 그러나 마을의 당산나무였던 정남이 씨 집 앞의 팽나무는 정확한 수령은 알지 못하나 상당히 오래되었다. 마을회관 앞 팽나무도 수령이 오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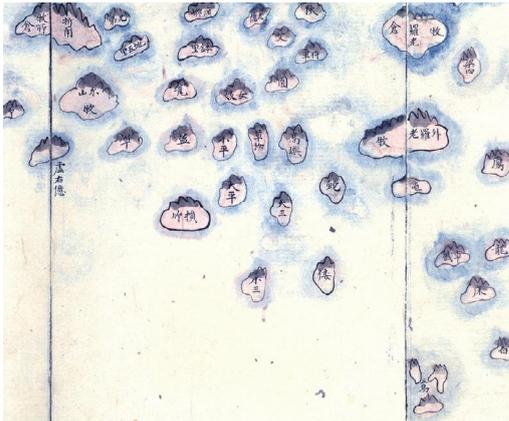


마을회관 앞 팽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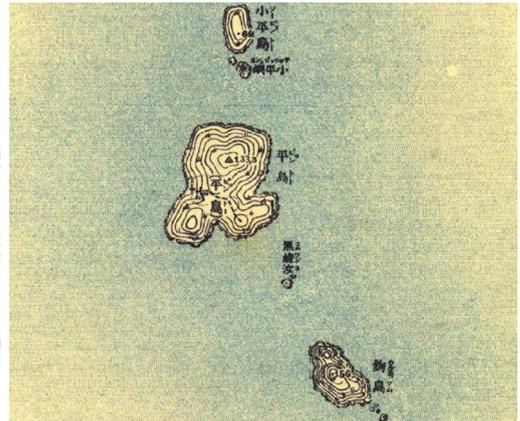
2. 역사와 문화

가. 연혁

평도는 흥양현(고흥군)에 딸린 섬으로 1895년 돌산군 삼산면 속하게 되었다. 일제강점기 직후인 1914년에는 여수군에 속하였다가, 1949년에는 여천군에 편입되어 손죽리의 자연마을이 되었다. 1998년 3여통합으로 여수시에 속하게 되었다.



청구도 삼산면



일제강점기 지도

나. 마을유래

평도마을

인근의 소거문도와 비슷한 시기인 1700년경 노씨, 허씨, 정씨가 처음 들어와 마을을 이루었으며 후에 송씨, 이씨, 김씨, 방씨 등이 들어와 살았다고 전한다.

다. 고고·역사유적과 유물

평도에는 특별한 유적과 유물, 기념비 등이 없다.



평도마을 전경

라. 평도의 어제와 오늘

1) 평도의 인구변화

평도의 인구통계는 1968년 10월이 가장 오래된 기록이다. 당시 기준으로 평도는 43세대 307명으로 인구수가 상당히 많았다. 5년 후인 1973년 세대수는 1가구 증가하고 인구는 1명 감소해 44세대 306명이었다. 이후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해 1985년에는 30세대 125명으로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고, 1996년에는 18세대 62명이었고, 2011년에는 22세대 35명으로 1명 사는 가구가 증가하였다.

남시나 해양레저 활동을 위해 10여 년 전부터 들어와 살기 시작한 인구가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으며, 삼산면 해상 풍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해서 고향을 떠난 주민들이 귀향하기 시작해 주민등록상 인구는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인구 현황 (명)

구분	1968	1973	1985	1996	2011	2023
세대수	43	44	30	18	22	35
인구수 (남+여)	307 (155+152)	306 (161+145)	125 (60+65)	62 (30+32)	35 (19+16)	49 (29+20)

2) 고양이섬 평도

1971년 3월 25일자 경향신문 7면에 재미있는 기사가 실렸다.

1970년대 초는 전국적으로 쥐를 퇴치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들여가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시절이었다. 당시 쥐를 퇴치하기 위해서 쥐약이나 쥐덫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되었으나, 쉽지 않았다. 그런데 남해 절해고도 평도는 쥐가 없는 마을이 된 것이다.

196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평도 역시 쥐 때문에 피해가 컸다. 주민들은 쥐를 퇴치하기 위해 굶을 하거나 당산에서 구서제를 지내기도 했다. 그러다가 고양이를 길러 쥐를 퇴치하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마을 공동으로 해초를 팔아 모은 돈 3만 원으로 고양이 17마리를 사들였다고 한다. 고양이를 주민들에게 나누어 주어 기르게 했으나 고양이가 쥐약먹은 쥐를 잡아먹고 죽어버리는 바람에 고난을 겪기도 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다시 고양이를 사서 각 가정에 분배하면서 잘 기른 집에는 라디오 1대씩을 포상하기로 했다. 그러자 주민들이 고양이를 보살피기 시작하자 고양이가 차츰 늘어나게 되었고 결국 7년 만에 쥐가 자취를 감추었다고 한다.

고양이도 450마리까지 불어나자 인근의 소거문도와 광도 등에 고양이를 판매하여 다른 섬마을에도 전파시켰다. 그러나 한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고양이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 고양이 먹일 사료가 부족해 고양이를 줄일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이렇게 고양이가 많다 보니 평도분교 학생 3명이 경향신문 여수지사를 찾아와서 평도분교와 자매결연을 하는 학교에 고양이 10마리를 선물하겠다는 토막기사가 나오기도 했다.⁷⁾



‘쥐없는 마을’ 신문기사

7) 1971년 9월 28일자 경향신문 기사

3. 섬 생활의 변천

『삼산면지』⁸⁾에 일제강점기인 1942년(소화 17년) 삼산면의 인구 구조를 비교해 놓은 자료가 있다. 위 자료는 삼산면의 인구가 일본인, 조선인, 외국인으로 분류 조사되었다. 거문, 덕촌, 서도, 동도, 초도, 손죽도로 구분하여 조사하였지만, 소거문도, 광도, 평도는 자료에서 따로 분류되어 조사하지 않았다. 이 자료에서는 소거문, 광도, 평도가 손죽열도에 포함이 되었는지 아예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는지 등을 알 수가 없다.

이 표에서 삼산면의 총 호수는 1,939호이며 이중 일본인이 87호로 전체의 4.5%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전체 인구의 3.3%로 거문리에 거주하는 일본인이 89.3%로 압도적으로 많았음이 조사되었다. 이후 여수시, 여천군 정립기⁹⁾와 여수시·여천시, 여천군 정립기¹⁰⁾로 구분하여 자료가 조사되었지만, 평도만 따로 구분된 자료는 없다.



평도우물

8) (사단)여수지역사회연구소 『三山面誌』, 삼산면지발간위원회, 2000.

9) 여수시, 여천군 정립기= 1958년~1975년까지 조사됨

10) 여수시·여천시·여천군 정립기= 1976년~1986년까지 조사됨

가. 평도의 생업

평도에는 정기 여객선이 없어서 손죽도에서 다시 섬사랑호를 타고 평도로 들어와야 한다. 평도에 도착하면 인근의 다른 섬들과 마찬가지로 커다란 방파제와 거대한 테트라포드가 그 위용을 자랑하며 방문객을 맞는다. 배는 테트라포드를 돌아서 안쪽 선착장까지 들어와야 하선 도록 한다.

배에서 내리면 정면에 태극기와 한전 깃발을 달고 있는 현대식 건물이 우뚝 서 있다. 발전소 건물로 직원이 6명이나 된다고 한다. 배에서 내려서 시멘트 길을 한참 걸어서 마을로 올라가는 경사진 길을 따라 오르다 보면 마을이 보인다. 선착장에서 마을로 진입하는 길은 상당히 넓어 차량 2대가 충분히 교행할 수 있을 정도이나 마을에 차는 보이지 않는다. 대신 오토바이가 5대가 있는데 3대는 전기충전식이고 2대는 휘발유 오토바이라고 한다.

1) 평도의 특산물

평도에 가면 꼭 막걸리를 먹어야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막걸리가 유명하다. 옛날부터 가용주를 물에서 조달하기가 어려우니 각 가정에서는 밀주를 담궜다. 워낙 낙도다 보니 특별히 단속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밀주라고 말할 것도 없이 그냥 가용주로 사용했을 것이다. 가용주를 담궜던 손맛이 대대로 이어지면서 다른 곳에 없는 특별한 막걸리가 탄생하게 되었을 것이다. 평도막걸리는 쌀과 누룩만 넣어서 만든다고 한다.

농주를 만들어서 걸쭉한 막걸리를 페트병에 담아서 내어 놓는다. 달달하고 걸쭉한 막걸리 맛에 취해서 한잔 두잔 훌쩍훌쩍 하던 것이 페트병에 내어놓은 두 병을 모두 마셨다. 이 막걸리는 평도 이외에도 여수시내 남산동의 작은 소주방에 가면 맛볼 수 있다고 한다.

옛 자료들을 보면 겨울에는 칩을 넣고 봄이나 가을에는 더덕이나 도라지를 넣어서 약술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이 술을 직접 담궜다는 박수아¹¹⁾씨는 다른 것을 넣지 않았다고 한다. 페트병에 담아서 판다.



박수아씨

11) 박수아: 김호철씨의 부인- 원래 평도 출신(1948년생)



마늘 말리기



마늘 미역말리기

2) 밭농사

섬의 서쪽 해안 중앙의 8자 모양 한가운데 지역에 마을이 있고 마을을 중심으로 주변이 밭으로 일구어진 경작지이다. 섬의 중앙이 평지이지만 주민의 대부분이 고령이라 농사는 거의 짓지 않는다. 그나마 농업보다는 일손이 덜 가는 어업에 종사하며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평도의 면적은 1.1km²로 전체 면적의 5%에 해당하는 7.1ha만이 농지이고 나머지 99.5ha는 임야이다. 주민 대부분이 농업과 어업을 겸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경작지가 워낙 적어서 주로 어업에 종사한다고 해야 맞을 것이다.

주요 농산물은 고구마, 보리, 콩, 마늘 등을 주로 재배한다. 현재는 주로 마늘 농사만 짓고 일용한 채소를 조금 심는 것이 전부이다. 옛날에는 주로 경작했던 작물이 고구마와 보리였다. 하지만 지금은 보리의 수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추수가 복잡하고 힘들어서 보리를 경작하는 농가는 전혀 없다. 고구마도 마땅히 처분할 방법이 없어서 한철 먹을 양만 심고 나머지는 저장성이 좋으면서도 농약을 치지 않아도 되는 손이 덜 가는 마늘 농사만 짓는다. 6월 평도에 들어서면 여기저기 마늘 말리는 풍경을 쉽게 볼 수 있다.

3) 논농사

평도는 벼농사의 기록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밭농사를 땅도 부족해서 벼농사를 지을만한 땅은 더군다나 없어서 벼농사를 짓기 어려웠을 것이다. 물이 대체로 풍족한 편이라서 산비탈 물골을 따라 논을 일구었을지나 모르나 현재는 논 농사의 흔적도 찾을 수가 없다.

4) 어업

연근해에서는 문어, 갈치, 조기, 잡어 등이 잡히며, 전복을 비롯하여 김과 미역을 채취한다. 특산물로는 홍합이 많이 난다. 해안가에 거북손, 고동, 배말(삿갓조개, 따개비) 등이 많아 반찬을 해서 먹기도 하였다.

겨울에는 주로 김을 양식했다. 박수아 씨에 따르면 2021년 겨울까지는 김을 양식했는데 올겨울(2022년 말부터 2023년 초)에는 김이 씨가 없어서 못했다고 한다.

최근에는 낚시꾼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다. 여름철에는 벙에돔과 돌돔, 가을에서 겨울철에는 감성돔이 많이 잡힌다. 평도 최고의 어종은 4~5월에 올라오는 감성돔이다. 봄 시즌 평도에서 낚이는 감성돔은 평균 씨알이 45cm를 넘을 정도로 굵다. 50cm가 훌쩍 넘는 대형 감성돔을 낚은 낚시꾼도 많다. 하루에도 큰 감성돔이 몇 마리씩 배출되는 통에 평도 인기도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고 있다. 그렇다고 평도를 찾는 모든 낚시꾼이 대물 감성돔을 품에 안는 건 아니다. 일반적으로 남해 중부권 중거리에 있는 큰 섬들은 가을 즈음이 감성돔 낚시에 가장 좋다. 평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렇다고 평도를 가을 감성돔 낚시터라고 표현하면 섭섭해질 낚시꾼이 적지 않다. 가을만큼이나 봄에도 많은 감성돔이 잡히는 곳이 평도이기 때문이다.



어선



띠발

나. 평도의 생활문화공간



집수정

평도는 전력은 공급되나 상수도는 공급되지 않아 주민 대다수가 간이 상수도물을 식수로 이용하고 있다. 정경렬씨¹²⁾ 집 바로 앞에 있는 물탱크가 평도 사람들의 식수원이다. 50톤 크기의 물탱크 3기가 있는데 이 물은 마을에 있는 샘물을 중간 50톤짜리 물탱크에 뒀다가 다시 그 물을 끌어 올려서 모아놓는 탱크이다, 평지에서 물을 수도로 연결하려면 수압이 약하기 때문에 높은 곳에 모아서 떨어지는 낙수 차를 이용해서 간이상수원으로 연결되어 있다.



닭장으로 활용하는 빈집

2020년 여수의 로터리클럽에서 7천만 원 상당의 평도 식수원 개발 사업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평도에 방사형 집수정을 설치해 주었다. 이 집수정을 평도 사람들은 뒤에 있는 물통이라고 부른다. 현재는 마을에서 나는 물로도 식수와 생활용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물은 그냥 바다로 버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 물은 가뭄이 들거나 물이 부족할 때만 비상용으로 사용하는데, 집수정 설치 후 평도마을 주민이 매년 반복되는 식수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교실에 가득찬 맥주캔

대부분의 섬처럼 평도에도 빈집이 많다. 관리가 되지 않아 쓰러지기 일보 직전의 집도 많은데, 특이하게도 빈집을 활용하여 닭장을 만든 집이 보였다. 지붕과 처마에 그물을 치고 닭장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닭이 몇 마리 보인다. 그 옆에 집은 창고로 활용하고 있어서 각종 농기구와 자재들이 들어차 있다. 이렇게라도 활용하면 좋은데 거의 활용되지 않고 폐가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다.



학교 소녀상

12) 정경렬 : 1960년생으로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낚시와서 평도에 반해 눌러앉았다. 숲속 깊숙이 혼자 집을 짓고 사는데 평도 사람들은 이 집을 숲속별장이라고 부른다.

학교는 폐교된 지가 꽤 오래되어 숲이 들어차 있고 그 사이로 어느 학교에서나 보이는 독서하는 소녀상이 보인다. 교실로 쓰였던 건물에는 누가 언제 먹고 버렸는지도 모르는 맥주캔과 소주병이 가득하다. 캔의 종류가 같은 걸 보니 외지인들이 각자 가지고 와서 버렸을 것 같지는 않다. 이 많은 양의 캔 종류가 모두 동일하다. 현지인이 버렸거나 현지에서 조달된 것으로 보인다. 포대에 담겨있는 것을 보면 주민이나 누군가가 수집해서 모아 놓은듯하다.

현재 평도의 전체 인구는 35가구로 상시 섬에 거주하는 인구는 13명 정도 되고 발전소 직원이 6명 있다. 마을과 선착장에서 만난 주민들 대부분은 할머니들이다. 평도에 몇 집이나 사는지 물어보면 대답을 하는 분마다 대답이 다르다. 많지도 않은 인구에 몇 사람 살지 않음에도 이렇게 대답이 다른 것은 실제 사는 사람과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만큼 섬의 실지 거주자는 적고 주민등록만 해놓는 경우가 많다. 일본에서 귀금속상을 하다가 이곳에 놀러 왔다가 사업까지 접고 눌러살고 있는 정남이¹³⁾씨도 13명이라고 했다가 15명이라고도 한다.

“대표님같이 뜨내기 말고 정확히 몇 명입니까?”

“나는 뜨내기 아니고 토박이지? 1년에 8개월 이상 여기에 살면 완전히 여기에 정착한 사람이여”

최근 삼산면에 풍력발전이 들어오면서 마을주민들에게 1년에 일정 금액의 지원금이 들어온다. 지원금을 보고 섬으로 주소를 옮긴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다. 이전에는 집을 두고 여수에서 오가는 사람들이 자녀교육 및 생활의 불편을 이유로 주소를 시내 쪽에 두었다. 풍력발전 지원금이 배정되면서 슬그머니 주소를 원래대로 옮겨놓은 사람들이 많다. 뻔히 알 수는 있지만 굳이 평도로 주소가 되었다는 것을 밝히지 않는다. 지원금을 보고 들어왔다는 소리를 듣는 것은 못내 자존심 상하고 약간은 염치없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소를 옮긴 사람들도 겨울에는 대부분 시내로 나가서 사는 주민들이 많다. 실제로 사는 정주 인구는 계속 줄어 들고 있지만 빈집은 줄어드는 기현상이 생겨나고 있다.

지금 정남이 대표가 살고 있는 집 앞 팽나무 두 그루이다. 현재 정남이 대표의 집이 원래 마을 회관이었는데 휴가차 섬을 찾아왔을 때 매물로 나와 있던 마을회관을 이 팽나무에 반해서 구입해 여기 정착하였다고 한다. 정남이 씨가 평도의 팽나무에 걸친 해넘이를 찍어 SNS에 올려 매우 익숙한 나무이다. 정남이 씨의 SNS를 보고 평도에 대한 환상을 키우는 사람들도 생겼으니

13) 정남이(1954년생) : 실제로는 1953년생이다. 2015년부터 평도에 이사와 살고 있다.

평도 전도사라고 봐도 어색하지 않다.



정남이 씨 덕 팽나무

지금은 정주 인구가 고령화되고 적어서 행해지지 않지만 정월 대보름날 무형문화재인 대보름 헌식 곳이 행해져 왔었다고 한다. 헌식 곳이란 임자 없는 혼령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 위로하여 주는 곳이다. 어족자원이 많았던

섬 주변의 여건 때문에 멀리 육지에서 고기잡이를 와서 목숨을 잃었던 어부들까지 위로하며 곳을 했다. 얼굴도 모르는 사람에게 제사까지 올렸던 평도 사람들의 넉넉한 인심이 엿보이는 대목이다.¹⁴⁾

평도에 도착하면 마을 앞 방파제의 테트라포드를 보면서 섬에 얼마나 바람이 많은지를 느낄 수 있다. 길호철¹⁵⁾씨는 원래 초도 출신으로 박수아 씨와 결혼하면서 초도에 살았다. 이후 여수에 나가 배사업업을 하다 다시 처가인 평도로 돌아와서 평도를 지키고 있다. 평도의 가장 골칫거리는 낚시꾼들이란다.

갯바위를 오염시켜서 고기가 살지 못한다. 들고 온 쓰레기를 그대로 버리고 가는 것은 다반사이고 밀밥을 뿌리는데 밀밥에 방부제가 들어 있어서 고기를 몰살시키고 있다. 쓰레기도 되가져 가는 사람은 거의 없다. 자망배도 그물로 바위를 돌려서 주민들이 낚시도 못하게 한다. 어촌계관리 지역 내에 들어와서 하다보니 주민들이 고기를 잡을 수가 없다. 고기가 그물에 잡혀 죽으면 죽은 물고기의 냄새를 맡고 또 다른 물고기들이 들어와서 죽게 되고 그 물고기의 냄새를 맡은 또 다른 물고기가 와서 결국 물고기가 씨가 마른다고 한다.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섬을 지키면서 춘장을 자처하는 길호철 씨는 그렇게 믿고 있다. 같이 말을 거들던 송원일 씨¹⁶⁾도 동의한다.

14) [네이버 지식백과] 평도 [平島] - 한국의 섬 - 여주시·광양시, 2021. 06. 15. 이재연
15) 길호철(1944년생): 실제로는 1941년생이라고 한다.
16) 송원일: 1975년생으로 반장/어촌계장의 아들이다.



한상차림

어촌계장이 시내에 나가서 여수에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주말에 들어온다는 아들을 불러 같이 인터뷰하였다.

점심은 박수아 씨가 준비해 주었다. 평도에서만 볼 수 있는 밥상이므로 거북손무침, 따개비무침, 문어무침, 생미역초무침, 오징어 회무침에 풍성한 한상차림이다. 거기에 직접 낚시해서 잡았다는 참돔회까지 올라왔다. 평도에서 직접 만들었다는 막걸리를 반주 삼아 모두 배부르게 먹었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물으로 나가서 생활용품을 직접 구입하는 것보다는 주기적으로 들어오는 박물장수(물건을 팔러오는 사람)에게 해초 등을 주면서 물물 교환을 하였다. 오래전에는 낚그릇이나 비녀를 주고 필요한 물건을 바꾸기도 했다.

한점순¹⁷⁾씨는 부산에서 살면서 남편이 평도에 집을 짓고 살아서 한 달에 1~2회 평도에 온다고 한다. 부산에 살지만 주민등록은 평도로 되어 있다. 부산에서 평도 한번 오려고 하면 차비뿐만 아니라 뱃삿이 워낙 비싼데 평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섬주민은 도서민으로 분류되어 배삿이 최대 5,000원이나 저렴하여 그나마 평도에 자주 올 수 있다고 한다. 부산에서 친구들이 평도의 환상에 이끌려 몇 번 왔는데 다들 뱃삿이 비싸서 두 번 다시 못오겠다고 했다고 한다. 섬 주민에게 뱃삿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도서지역 인구 유인책으로 상당히 좋은 효과를 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길호철 씨의 집에서 점심을 먹고 마을의 식생 조사차 한점순 씨와 마을 뒷산을 둘러볼 요량으로 길을 나섰다. 간수제도로 가는 길을 따라 300여 미터 가다가 오른쪽으로 난 길을 한참을

17) 한점순 : 부산에 살면서 평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 호적상 1956년생이나 실제로는 1958년생이다. 남편은 김백만 씨로 부산 서구청 공무원을 하다가 낚시에 꽂혀 명퇴하고 평도에 땅을 사서 정착했다.



방안에 가득한 물병

올라가면 산속에 집이 한 채 보인다. 사람이 기거하는 곳이다. 정경렬 씨가 깊숙한 산속에서 혼자 산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 하던 중에 낚시하러 왔다가 땅을 사서 2014년부터 펜션을 손수 짓기 시작했다고 한다. 여기저기서 취재오는 사람들이 많아서 사람을 경계한다. 집안으로 들어서자 거실에 페트병 식수가 가득하다. 작년 갈수기 때 우물에서 대장균이 나와서 지원해줬다고 한다.

화장실은 공중(空中)변소이다. 적당히 가리고 나무를 걸쳐놓아 배설물은 그대로 허공으로 떨어진다. 허공에 떨어진 배설물의 처리 과정은 굳이 보지 않았지만 아마 지나가는 들짐승의 먹이가 되어 치워지는 것 같다.

이곳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큰 굴이 나오는데 평도 사람들은 이곳을 숲속에 별장 올라가는 길이라고 한다. 큰 굴 쪽에도 선착장이 있다. 방파제가 없던 시절 배를 댈 때는 바람을 따라 큰 굴 쪽에서 배를 댈 때도 있어서 만들어진 선착장이다.

하늬바람이 많이 불어서 ‘하늬바람석’이라고도 한다. 하늬바람은 농부나 뱃사람들이 ‘서풍’을 이르는 말이다. ‘하늬’는 뱃사람의 말로 서쪽이다. 따라서 하늬바람은 맑은 날 서쪽에서 부는 서늘하고 건조한 바람을 말한다.

마을 동편에 위치한 물커리라는 곳에서는 암물과 수물이 바위 사이에서 흘러나오는데, 그 물을 옛날부터 약물이라고 했다.

“그 샘물은 갯바위에서 폭포수같이 바다로 바로 떨어지는데 사람들이 갯바위로 내려가서 이 낙숫물을 맞으면 피부병이 낫는다는 말이 있더라고”

정남이 씨의 말이다. 워낙 깎아지른 절벽이라 정남이 씨도 아직 내려가 보지 못했다고 한다. 평도에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것이 또 하나 있다. 바로 빨간 우체통이다. 당연히 우체통은 빨강고 우체통이 다 거기서 거기 아니겠나 싶지만 실제로 평도에는 정식 우체통이 없다. 우체국

에서 빨간 우체통 하나 갖다 놓아도 크게
 예산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도 우체통이
 없다. 우편물을 집집마다 배달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정식 우편배달부가 오
 는 것도 아니고 부정기적으로 오는 여객선
 이 배가 달고 나가는 길에 우편물을 배달하
 기에 때문에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우편물을 취합해줄 수 있는
 우체통은 하나 있어야 할 것이다.



빨간 우체통

평도에는 빨간 전자레인지 우체통이 있었
 다. 정남이 씨가 섬에 들어오던 2015년에는 이 우체통은 거의 부식되어 쓸 수 없는 상황이었
 다. 평도는 워낙 바람이 거셀 뿐만 아니라 해풍이 들이닥치기 때문에 어지간한 물건들이 남아
 나지 못한다.

부식된 우체통을 보고 지나다니던 정남이 씨가 서울집에 들렀을 때 근처 고물상에 나와있는
 전자레인지를 발견하였다. 평도의 빨간 우체통이 생각나서 전자레인지를 구입해 빨간색을 칠
 해서 택배로 보내 다시 이 자리에 가져다 놓았다고 한다. 원래 있던 전자레인지 우체통은 누
 가 언제 가져다 놓았는지는 모른다.

누군가 쓰다버린 전자레인지에 빨간 색깔을 칠해서 ‘우편물’이라고 쓰고 마을 입구 높은 바위
 위에 올려놓았다. 혹여 날아가지 않도록 큰 돌을 하나 올리고 거기에는 ‘평도’라고 썼다. 이 센
 스있는 우체통은 오랫동안 평도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이나 관광객들, 낚시꾼들에게 평도에 가
 면 꼭 보고와야 하는 명물이 되고 있다.

평도를 찾는 외지인은 특별한 목적을 가진 조사자들이나 건설 등을 위해 가는 업자가 아니면
 거의 대부분 낚시꾼이다. 행정구역은 여수이지만 가까운 고흥권역의 나로도를 비롯하여 포구
 마다 낚시배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 평도이다. 평도는 무인도가 많아서 갯바위마다 낚시꾼
 들의 행렬이 끊어지지 않는다. 비석바위, 시와여, 대청여, 앞여, 검등여, 큰여, 작은여 등의 여
 가 많아 육지에서 멀지만 낚시꾼이 즐겨 찾는다.

낚시배를 이용하여 이동하면 1인당 6만 원 정도가 드는데 여객선의 왕복 운임과 비슷하다. 관
 청여라는 곳은 낚시꾼들에게 유명한 낚시 포인트라고 한다. 하지만 워낙 우뚝 솟기도 해서 돌
 풍이라도 불면 위험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내려서 낚시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 험준한

포인트일수록 다른 사람들이 덜 들어온 자리여서 고기가 잘 낚인다고 한다. 낚시꾼들에게 엉덩이를 붙일 정도의 자리만 있으면 포인트가 된다. 텐트를 칠 정도의 평평한 자리가 있으면 낚시꾼에게는 무궁화 4개짜리¹⁸⁾자리라고 한다.

평도의 주민들은 타지 낚시꾼들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다. 쓰레기만 버리고 고기만 낚아서 가기 때문이다. 바다는 섬사람들의 삶의 터전이자 생명 창고이다.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 되어 있는 재산은 아니지만 어촌계에서 정식으로 관리하는 텃밭이다. 이 텃밭에 아무나 들어와서 무작위로 낚시하기 때문에 섬 사람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다.

2016년 9월 전남도의 “섬 자원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 결과 전국 섬의 65%를 차지하는 전남 섬 50여 곳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용역 결과 지난해 2,219곳인(통계연보 기준) 전남의 섬이 2,165곳(용역조사 기준)으로 54곳 줄어들었다고 했다.

유인도는 279곳으로 17곳 감소하고 무인도는 1,886곳으로 모두 37곳이 줄어들었는데 여수는 11곳의 무인도가 감소했다. 무인도가 가장 많이 줄어든 여수는 일간도·이간도·취섬·달섬·장도 등이 매립으로 육지화됐거나 다른 섬으로 편입됐고, 작은계섬은 밭과 작업으로 인해 사라지기도 했다.

기존 섬으로 분류됐으나 식물의 식생이 없어 암초로 재분류 되어 섬에서 제외된 곳과 기존 무인도였던 3곳 등은 사람이 정착해 살면서 유인도화되었다. 전남 섬의 감소세는 매립·밭파 등



가옥담장



사장터

18) 호텔의 등급을 말하는 것임

으로 섬 자체가 줄어든 탓도 있지만, 현장 실제 조사를 통해 섬 정보를 정확히 업데이트한 결과라고 전남도 관계자는 설명했다.

전남도는 섬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섬 고도화 사업과 도서종합개발사업’, ‘섬 관광 콘텐츠 개발’, ‘테마 여행 프로그램 개발’ 등에 나설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기초자료를 토대로 유인도화된 곳은 지원사업을 마련하겠다.”며 “연말에는 실제 조사한 자료가 정부통계에 반영돼 전남의 섬 개수가 정확히 표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¹⁹⁾

이 조사를 기초로 전남 섬의 위치와 주소, 면적, 해안선, 지도 보기와 같은 기본 정보는 물론, 섬의 역사와 생활문화, 환경과 생태자원을 인터넷으로 검색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사람이 사는 섬의 인구와 토지, 공공기관, 사회조직, 의료시설, 교통, 체육·문화시설들에 대한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받게 된다.

역사문화 자원으로 섬의 연혁, 마을유래, 역사적 인물·사건, 문화유산 자원 등을 조사해 사진, 고도와 같은 자료들이 등록되었다. 또 생활문화 자원으로는 섬의 사회, 민속, 생업, 특산물, 축제, 놀이, 신앙, 설화, 민속놀이, 세시풍속과 같은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자료를 담았다.

이런 조사들이 데이터베이스화되면서 평도나 광도 같은 작은 섬도 통계자료에서 빠지지 않는 섬이 되기를 기원한다.

다. 선박

1) 여객선

소거문도와 마찬가지로 손죽도에서 섬사랑호가 하루 2회 부정기적으로 운항하고 있다.

2) 선박

평도와 광도의 어선 현황은 2023년 초 기준으로 5톤 이상으로 잠수기 어업을 할 수 있는 어선이 1척, 5톤 이하 어업허가선이 7척, 1톤 내외의 무등록어선이 4척으로 총 12척이 있다.

19) 무등일보 2016.09.05.(월) “전남 섬 54개 줄었다 도, 자원조사용역결과”

4. 평도의 민속문화

가. 평도의 지명유래



평도는 섬의 모양이 평평하여 ‘평도’라고 하였다.

- 【개(浦)】**
- 워-개 : 평도의 서남단에 있는 개
 - 이내청-개 : 평도 북단에 있는 개
- 【고개】**
- 돛방-치 : 소평도 서쪽 해안에서 취골으로 가는 고개.
- 【곶】**
- 간-데-곶 : 평도 마을 서쪽 해안으로 선착장 아래에 있는 간대(빨랫줄에 걸치는 막대기)를 세운 듯한 절벽
 - 댄-머리 : 선착장이 만들어지기 전에 배를 대었던 해안
 - 솔-섬-곶 : 평도 동쪽 새땀에 있는 해안
 - 아랫-부리 : 평도 남쪽에 있는 갈키섬의 최남단의 새의 부리처럼 생긴 곳
 - 진-여-곶 : 소평도 남단에 있는 물속의 긴 여가 있는 섬부리
 - 취-곶 : 소평도 서쪽 끝으로 해안이 절벽(취)으로 이루어져 있음
- 【도】** 섬과 섬 사이나 섬과 큰 바위 사이에 물 흐름이 빠른 곳
- 작은-여-또 : 평도 남쪽 작은여와 평도 섬 사이
 - 큰-여-또 : 평도 남쪽 큰여와 평도 섬 사이
- 【마을】**
- 높-바람-땀 : 평도 최북단의 지역으로 높바람이 닿는 지역으로 높다지라고도 부름
 - 마-땀 : 평도 최남단 지역으로 남풍을 마파람이라고 하는데 마땀은 마파람이 닿는 곳
 - 물-커지 : 평도마을 동편에 있는 지역으로 목욕하면 피부병과 증기가 낫는다는 약수가 나와 물을 맞았던 지역
 - 새-평도 : 평도 북쪽에 있는 소평도의 다른 이름
 - 샛-땀 : 평도 동쪽의 동풍이 닿는 지역
 - 앞-맹이 : 평도 남쪽에 있는 갈퀴섬의 북쪽 지역
- 【산】**
- 북-산 : 평도마을 북쪽에 있는 산으로 해발 137.4m의 산으로 큰제산이라고도 부름
- 【여】**
- 검등-여 : 평도 동남쪽에 있는 검은색 바위로 이루어진 여
 - 대청-여 : 평도 동남쪽 검등여 북쪽의 여
 - 돌섬-여 : 평도와 소평도 사이의 높바람담에 있는 여
 - 시와(여) : 평도 동북쪽 큰 굴 부근에 있는 여
- 【작지】**
- 건네-작 : 평도 마을 입구인 댄머리 너머에 있는 작은 자갈밭 해변

- 【지역(곳)]
 - 가-멧-자리 : 갈퀴섬 남단에 있는 해변으로 평도 마을의 사람이 죽으면 초분이나 돌담으로 가묘를 썼던 자리
 - 진-나리 : 평도 마을 입구에 있는 긴 너럭바위
 - 제-당 : 평도 마을 남쪽에 있는 작은 동산으로 제를 지냈던 당집이 있던 곳
 - 닻-거리 : 평도 남쪽 중앙에 있는 해안으로 배들이 닻을 내리는 곳
- 【지역(밭)]
 - 강천네-밭-밭 : 평도 서단 건너편에 있는 해안
 - 막-밭 : 소평도 남단에 어부들의 임시 거처인 막이 있던 지역
- 【지역(섬)]
 - 굴-섬 : 평도 마을 북쪽에 있는 큰 굴 안으로 섬(또는 석)은 폭풍우에 배들이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항구인데 이곳 굴섬은 하늬바람이 강하게 불 때 배들이 피항하던 곳

나. 평도의 설화와 민요

평도 약수 전설

평도마을 뒤편으로 동쪽에 ‘물거리’라는 곳이 있는데 이 곳에는 암물과 솟물이 바위 사이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그 물은 옛날부터 약물이라고 하여 사람들은 그곳에 쌀과 돈을 놓고 절을 한 후 그 물로 목욕하면 피부병과 종기가 낫는다는 이야기가 전해 오고 있다.

다. 평도의 음식문화

평도는 바람이 많고 토지가 적어 밭농사와 어업에 의존하며 살았다. 농작물은 보리와 고구마가 전부였으며 산에서 자생하는 먹거리를 많이 찾아 조리해서 먹었다고 한다. 현재는 옥수수, 콩, 양파, 마늘, 파, 상추, 호박, 깨, 아욱, 고추, 더덕, 도라지, 당근 등을 재배하여 식재료로 활용하고 있다.



군소무침



문어미나리무침



미역무침



고구마배갱이죽



우무가사리 된장국



우뭇가사리

평도사람들은 과거에 보리풀떼죽, 고구마, 칩녹말죽, 고구마전분죽을 주로 먹었다. 미역, 우무가사리, 김, 뜸부기, 톳, 불등가사리, 참가사리, 파래 등의 해조류를 채취하여 식재료로 활용하였고, 바닷가에서 나는 군보, 군소, 섭, 보말, 소라, 고동 등은 평도사람들에게 큰 반찬으로 활용되었다. 어류로는 갈치, 멸치, 농어 등이 주변바다에서 잡혔다.

평도의 우물은 마을 공동 샘이 하나 있었으며, 인구가 많았을 시절 45가구가 두레박질을 해서 물을 길어다 먹었다. 1970년대 마을 집수정이 설치되어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다.

라. 평도의 신앙

1) 당제

평도마을 주민이 언제부터 당제를 모셨는지 전해오는 문헌이 없어 정확히 알 수 없다. 당집은 마을 뒷산 중턱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멘트 벽돌로 지었는데 한 칸짜리 건물이다. 현재는 지붕은 없어지고 형태만 남아있어 정확한 형태를 파악하기 힘들다. 당집 옆에 메를 짓던 조그만 절구가 남아있다.



당숲



당집 터

상당한 당집의 신격은 당산할아버지이고, 하당은 마을 앞 바닷가이며, 신격은 용왕이다. 평도에는 인근 지역의 섬들과 다르게 음력 선달 초하루부터 초사흘날까지 3일 동안²⁰⁾ 당제를 지냈다. 초하루에 마을 뒷산 중턱에 있는 당집에 올라가 당제를 지내고, 초사흘날 용왕제를 지냈다.

당주는 마을사람 중에 한 해 동안 집안에 상을 당했다든지 출산이 없어야 함은 물론 이혼이나 부정할 일이 없고, 생기복덕이 맞는 사람 중에서 한 명을 선출하였다. 당주가 되면 행동을 조심하고, 초상집 등에는 가지 않았으며, 동네사람과도 대화하지 않았다. 당주가 되더라도 따로 수고비는 받지 않았다. 제물은 따로 사지 않았고, 고기나 과일 없이 제편과 메로만 제상을 차렸다. 음력 12월 1일에 밤에 제주는 당집으로 올라간다. 당제를 지내는 동안 개나 소 등의 짐승이 울지 않도록 하고 마을 사람들도 밤에는 불을 켜지 않았다고 한다. 제를 지낼 때는 화장실을 가지 않기 위해 소식을 했는데 주로 밥과 간장만을 먹었다고 한다.

제주가 사용할 물과 제물 준비를 위한 물은 반드시 '좋은 샘터'에서 길러오는데 마을 뒤편에 위치한 이 샘에서 마을을 거치지 않으려고, 일부러 멀리 돌아 당집과 좋은 샘터를 오갔다.

초사흘에 마을 앞 바닷가인 하당에 물이 들어오면 당주가 메와 제편으로 차린 제물을 가지고

20) 당제를 선달 초사흘날에 지냈다는 이야기도 있다.

당집에서 제물을 들고 내려와 용왕제를 지내고 제물은 석자(철사로 잘게 그물처럼 엮어서 바가지와 비슷한 모양으로 만든 그릇)에 싸서 바다로 띄어 보냈다.

1995년까지 당제를 모셨으나, 이후에는 마을의 인구감소와 노령화로 더 이상 당제를 지내지 않는다.

2) 매산제

한편, 평도 마을주민들은 선달그믐날에 매산제를 지냈다. 마을 너머 샘에서 목욕재계하고 제를 지낸 후 마을 뒤편 사장 터에서 한사람이 앞드려 ‘매산아’라고 부르면 마을 어른 한 명이 산신 역할을 하면서 ‘왜 그러느냐’ 대답했다. 그러면 앞드린 사람이 마을의 평안과 풍어 등의 소원을 빌었고, 마을 어른은 ‘다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대답했다.

매산제가 끝나고 초사흘부터 엿새까지 되면 집집마다 매구를 쳤다. 매산제를 지내고 나면 어린이들이 집집마다 밥을 얻어먹으러 다녔다. 엿새째에 마을 뒤편에서 걸판을 벌여 귀신들이 음식을 바치고 위로했다.

3) 용왕제

음력 선달 초사흘날²¹⁾에 오전에 마을 앞 바닷가 남쪽의 따스한 곳에서 풍어와 평안을 기원하는 용왕제를 지냈다고 한다.

4) 기독교

서울에서 내려온 박옥 전도사가 민가를 개조하여 3년간 개척하다가 1990년대 후반에는 정종관 집사가 운영하기도 했으나 지금은 터만 남아있다.



평도교회 터

21) 용왕제를 선달그믐날에 지냈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다.